

광주·전남 해 넘기는 현안사업 수두룩

어등산 개발·군공항 이전

송정역 복합환승센터 건립 등

주민 반발·부지 갈등으로 답보

흑산공항 건설도 지지부진

수산물수출단지는 곧 예타 조사

광주와 전남도의 핵심 현안 사업들이 주민 갈등과 예산 미확보 등의 이유로 해를 넘기게 됐다. 어등산관광단지 개발과 흑산공항 건설 등 올해 마무리하지 못한 현안 사업들은 광주·전남의 '미래 지형도'를 바꿀 핵심 사업이라는 점에서 아쉬움을 남긴다.

어등산관광단지 개발은 중국 관광객 유치를 위해 필수적인 대규모 관광단지 사업이며, 흑산공항 건설도 접근성이 떨어지는 여객선 중심이었던 전남 서남해안의 교통에 혁신적인 변화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3면〉

광주시의 대표적인 미완사업은 ▲어등산관광단지 개발 ▲특급호텔 건립 ▲광주군공항 이전 ▲광주송정역 '복합환승센터' 건립사업 등이다.

어등산관광단지 개발은 옛 군부대 포사격장으로 황폐화한 어등산 일원에 유휴지와 휴양시설, 호텔, 골프장, 경관녹지 등을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하지만 지역 상권의 반발 속에 정기간 표류하고 있는 대표 사업이 됐다.

올해 광주시가 민관위원회까지 꾸렸지만 과거 11년간 반복된 논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시는 올 해 안에 민간사업자 공모에 들어가 이르면 내년 1월께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지만 주민 반발 속에서 광주시가 우왕좌왕하다 올 해도 첫 삽을 뜨지 못했다.

특급호텔 건립사업은 광주신세계가 광주시 서구 화정동 이마트와 모델하우스 부지 등에 특급호텔과 백화점을 포함한 복합시설을 조성하는 걸 말한다.

사랑과 감사의 63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17]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면세점이 포함돼 있어 대중국 관광 산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윤지호위원 등이 특급호텔 건립에 부정적인 의사를 밝히면서 사업 추진이 더욱 움츠러들었고 결국 해를 넘기게 됐다.

또 광주군공항 문제는 이전 지역민 반발 우려 탓에 올해 예비이전후보지도 선정하지 못했다. 현재 군공항이전 후보지는 국방부장관이 군사작전 및 군 공항 입지의 적합성 등을 충족하는 지역을 관계 자치단체장과 협의 후 예비이전후보지를 선정하게 된다. 또 예비이전후보지 중 이전부지선정위원회(위원장 국방부장관) 심의를 거쳐 이전후보지를 선정하게 되는 복잡한 과정을 거치지만 올해는 첫 단추도 꿰지 못했다.

광주송정역 '복합환승센터' 건립사업도 애초 올 상반기 중에 개발계획서를 국토부에 제출, 승인을 받아 사업시행자 지정과 실시계획승인을 연내에 마무리할 것으로 기대됐지만 현재까지 답보 상태다. 광주시와 코레일 측이 그동안 토지매입과 매각만 합의한 상태에서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전남도는 역점으로 추진했던 흑산공항 건설과 수산물수출단지 조성 사업이 늦춰진 것에 대해 아쉬워하고 있다. 흑산공항 건설 사업은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 국립공원계획 변경안 심의에 발목이 잡혀있는 상태다.

전남도와 서울지방방공청은 이번 주내 환경부가 요구한 보완사항을 반영해 '국립공원계획 변경 관련 재보안 내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흑산공항 건설은 섬 주민들의 응급구호와 교통불편 해소, 서남해 영토수호 및 자원 관리, 해양관광 활성화 등 필요에 따라 국책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애초 전남도는 지난 9월 국립공원위원회 심의에서 통과되면 12월 착공할 계획이었다.

수산물수출단지는 예비타당성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아 기본계획 수립이 늦어지고 있다. 총사업비 1000억원인 수산물수출단지는 목포 대양산단에 조성할 계획이며, 전남 수산식품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꼭 필요한 기반시설이다. 정부도 수출단지 조성 필요성을 공감해 내년 국비 예산 25억 원을 반영했다. 수출단지의 경제성 여부는 27일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중간보고회에서 가늠될 것으로 보인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전통 가마솥서...메주콩 익어가는 마을 26일 광주시 남구 압촌마을 메주 가공업체에서 이 마을 부녀회원들이 콩을 삶고 있다. 압촌마을 메주는 친환경 콩으로 만든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전국 각지에서 주문이 밀려들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호남고속도로 동광주~광산 확장공사 방음에 막대한 시민 혈세 써야 하나

공사비 4229억으로 급증

기재부 예비타당성 재조사

2114억은 광주시비로 충당

호남고속도로 상습정체구간인 동광주~광산나들목 확장사업에 투입될 공사비 가운데 3분의 1 이상이 방음벽·터널 설치 예산인 것으로 드러났다. 방음벽·터널을 무려 24.1km 구간에 설치하면서 공사비가 1467억원 증액됐기 때문이다.

광주시는 26일 "동광주~광산나들목의 확장공사와 관련 지난 2016년 기본설계에 착수했다가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소송민원에 따라 공사비를 재조정, 현재 기획재정부가 예비타당성을 재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당초 공사비 2375억원, 보상비 387억원 등 2762억원을 투입해 동광주~광산 나들목 구간 10.8km 구간을 6~8차로로 확장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시는 확장공사에 따른 방음벽·터널을 당초 3.8km에 걸쳐 설치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지난해 고속도로 주변 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이 제

기되면서 방음벽·터널 20.3km가 추가됐다. 이로 인해 사업비는 4229억원으로 급증했다. 1467억원이 증액된 것으로 전체 공사비의 35%에 이른다.

시 관계자는 "공사비에서 20% 이상 증액됐기 때문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며 "이로 인해 공사기간도 당초 2022년 완공에서 2년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 2013년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비용편익비교 지수(B/C)가 0.96으로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왔으나, 방음벽 설치에 따른 예산 증액으로 내년 상반기 나올 예정인 재조사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일각에서는 4229억원을 투입할만큼 공사가 시급한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4229억원 가운데 절반인 2114억5000만원을 시비로 충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도시철도 2호선, 민간공원 특례사업 등으로 인해 재정 여건이 어려운 광주시가 아파트 방음벽 설치에 과도한 예산을 쓰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시는 내년 상반기 예비타당성 재조사 결과가 나오면 기본설계 등에 나설 방침이다. /윤현석기자 chadod@

국민의당 전당원 투표 지역서도 반발 확산

시·도 의원 즉각 중단 촉구

국민의당 통합 전당원 투표 시행을 앞두고 지역 정치권에서도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관련기사 3면〉

국민의당 소속 광주시의원들과 구의원 34명은 26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위한 전당원 투표 중지를 요구했다. 이들은 이날 '국민의당 정상화를 위한 호소문'을 내고 "국민의당이 끝없이 추락하고 있으며 국민과 당원은 안중에도 없는 독선에 빠져버렸다"며 "안철수 대표가 무리하게 추진하는 전당원 투표는 원천무효이며 그 투표에 참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광주시의회 국민의당 원내 대표인 김민중 의원은 "모든 통합절차를 중단하고 내부 화합을 위해 힘을 하나로 뭉쳐달라. 내년 지방선거 체제로 전환해 필승의 길을 고민하고 찾아달라"면서 "분란이 계속된 채로 만약 전당대회까지 열

렸다면 전당대회 전 탈당도 불사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이 호소문 작성에는 국민의당 소속 광주시의원 9명 전원이, 구의원 26명 중 25명이 참석했다. 전남지역에서도 반발이 거세다.

전남도의원과 시·군 기초의원들도 27일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당원 투표 전면 거부를 선언할 예정이다. 국민의당 소속 전남지역 광역·기초의원은 도의회 정일 원내대표를 비롯해 도의원 25명과 시·군의원 75명 등 모두 100명이다.

박홍률 목포시장과 목포시의원들도 바른정당과 통합에 대한 국민의당 전당원 찬반투표에 반발하고 나섰다. 박 시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창당 정신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통합을 강행하는 것은 민주적 절차에 위배되고, 정당들이 추구하는 지향점과도 맞지 않으므로 투표 참여 자체를 거부한다"고 밝혔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인삼의 생명력을 담은 혁신적 마스크 우아하게 빛나는 탄탄한 피부를 선사하다

NEW 설화수 자음생마스크

건강하지 않은 피부상태가 지속되면 피부는 힘을 잃게 됩니다
인삼에서 찾은 강력한 에너지로 집중적인 피부 개선을 돕는 자음생마스크

인삼 뿌리의 핵심 에너지를 담아 집중적인 보습과 탄력 개선에 도움을 주고
자음생크림의 부드러움 그대로를 담은 이중 구조 더블 랩핑 시트™로 탄탄하게 빛나는 피부를 선사합니다
이제 자음생마스크로, 경향해보지 못한 혁신적인 마스크 인티에이징을 시작하세요

Sulwhasoo

• 설화수 플래그십 스토어 및 전국 백화점, 이모레 카운셀러를 통해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 홈페이지: www.sulwhasoo.com • www.facebook.com/sulwhasoo.official • 콜센터: 02-541-9270 • 고객센터: 080-023-5454 (수신자 요금부담)